

# 전남교육청, 학교예술교육 역량강화 연수 '시작'

### '예술로 행복한 수업아카데미 시즌1' 막 올려 학교예술교육 강조에 발맞춰 예술체험 생활화 학생 중심 예술수업 개선 교원 연수 프로그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학교예술교육 역량강화 연수인 '예술로 행복한 수업아카데미 시즌1'의 막을 올렸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강조에 발맞춰 학생들의 예술체험 생활화와 학생 중심 예술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예술로 행복한 수업아카데미'를 마련해 지난 4월 10일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7개 프로그램에 125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던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는 단

편적인 운영이 아닌 시즌 형식으로 확대해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총 22개 프로그램에 350여 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방역과 충분한 연수 체험을 위해 최소 인원만으로 운영되며 교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연수 장소를 분배했다.

프로그램 내용도 △ 교육연극 △ 교육뮤지컬 △ 시각예술 △ 전통예술 △ 예술창작 △

그림책 △ 생태예술 △ 공연예술 등 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다양한 예술장르를 마련해 '체험형, 강의형, 프로젝트형, 원격형, 마스터클래스' 등 여러 형태로 운영한다.

첫 연수 프로그램인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교육연극의 만남' 운영 후 설문에서 참여 교원들은 "교실에서 연극을 적용하는 단계를 다체 일하게 체험했다. 실제 수업과 연계하여 직접 시연과 참여를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였다."고 만족해했다.

도교육청은 예술로 행복한 수업아카데미 시즌1을 시작으로 모든 교원이 교육과정에서 예술을 함께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현장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와 예술수업 내실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 무안교육청, '스쿨 퍼실리테이션'으로 찾아가는 학생자치 역량강화 지원

### 학생이 학교 주인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확산 계기 마련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이 4월부터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전교학생회와 학급을 대상으로 '스쿨 퍼실리테이션'으로 찾아가는 학생자치 역량강화 학습에 나선다.

찾아가는 학생자치 역량강화 학습은 퍼실리테이터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퍼실리테이션(촉진활동)을 경험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바탕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고 꾸러가는 시

간을 갖도록 하며 더불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가 민주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작은 시도로 학생들이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 실천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데 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및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초등학교 6교, 중학교 3교를 대상으로 총 15회를 걸쳐 이 행사를 진행하며, 추가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여수중, 숲체험교육 '숲으로 Go, 코로나 Bye!' 프로그램

### 숲체험교육으로 서로 협동하고 배려하는 마음 배워

여수중학교(교장 송남진)는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받아 4월 17일에 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숲체험교육 '숲으로 Go, 코로나 Bye!'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은 치유의 숲을 활용한 생태환경교육과 목공교육을 통해 자기표현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숲산책 및 숲해설, 숲놀이, 숲명상, 목공체험 순으로 진행

되었고 따뜻한 봄날의 숲을 온 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2학년 김모학생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의 기회가 없었는데 숲 체험과 목공체험 활동과 함께 휴양림의 황토길을 걸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니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며 "숲체험으로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기회가 됐다."고 즐거워했다.

강숙희 복지사는 "이번 숲체험교육을 통해 숲은 어느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숲을 통해 서로 협동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



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험과 학습, 심리정서 영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 광양평생교육관, '토요일은 창의랑 놀자!' 창의 프로그램 인기

### 'AR&VR 코딩교실'·'로봇 탐험대'·'창의 드론축구'·'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광양평생교육관(관장 선승현)은 창의융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토요일은 창의랑 놀자!' 프로그램 4개를 17일 개강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9일까지 10주 동안 이루어지며, 'AR&VR 코딩교실', '로봇 탐험대', '창의 드론축구',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에 50여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다. 특히 코로나19시대에 대응하여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는 혼합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내 손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참여하니 수업이 더욱 재미있고 흥미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선승현 관장은 "우리 교육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잠재능력과 소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심종성기자

